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Difference of Collaboration · Empathy Skill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according to School Bullying Types

박완성*, 정구철**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Wan-Sung Park(pwansung@syu.ac.kr)*,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서 213명의 청소년(중: 106명, 고: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집단따돌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였고, 집단에 따른 예측변수의 설명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은 협동 및 공감기술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학교생활적응도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집단따돌림 가해군과 피해군은 협동기술의 부족과 관련되며, 가·피해군은 공감기술의 부족과 관계가 있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도에 협동과 공감기술은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협동과 공감기술은 집단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줄이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집단따돌림 | 협동 | 공감 | 학교생활적응 | 청소년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bullying types, collaboration · empathy skills,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A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research, and asked 213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capital area(middle school: 106, high school: 107). Data Analysis was used a two-step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 of bullying, explanation of a prediction variable according to the groups were analyzed by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research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experience of afflicting or suffering from school bullying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collaboration · empathy skills, and also with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ly, assailant group and victim group of school bullying was related to the lack of collaboration skill, and also related with empathy skill. Thirdly, collaboration · empathy skills was influential factor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Based on the results, collaboration · empathy skills reduce the experience of bullying,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It confirmed the need for a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 **keyword** : | School Bullying | Collaboration | Empathy | Adaptation of School Life | Adolescents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7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09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9월 30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은 신체적 폭력에서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1]. 이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따라 법적·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집단 따돌림-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돌림이란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행동의 의도를 내포한다. 따돌림의 문제는 따돌리는 청소년, 따돌림 당하는 청소년 모두의 인격형성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쳐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2].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 관계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 기술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3],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비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4]. 더 나아가 심각한 경우는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학교 부적응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도 된다.

실제로 201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13.3%), 집단 따돌림(13.3%) 등이 전체 응답 유형 중 26.6%를 차지하였다[5]. 같은 기관의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75.2%)과 ‘사이버 따돌림’(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신체적 폭력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6]. 또한 201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16.5%), 언어폭력(35.3%) 비중은 매우 높게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집단 따돌림의 경우 피해 유형 중 전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보고되고 있다[7]. 즉 한 학급당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집단 따돌림이 이슈화가 된 지 약 20년 지났으나 아직도 크게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피해가 청소년들의 학교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괴롭힘에 대한 학급규모가 부정적이라고 믿을수록 청소년들은 집단 괴롭힘에 대해 더 적극적인 방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또래로부터 집단따돌림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피해청소년은 학교라는 공간을 불공평하고 비지지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여기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변화로 인해 집단따돌림의 피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학교를 안전하고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집단 괴롭힘 피해 집단이라 하더라도 학교적응이 우수했고, 또한 이러한 학교분위기 인식은 다른 모든 변인들보다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자존감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사건은 외상경험으로 남아 심리적 위축을 통해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또 학습에 참여가 낮아지고 학교에 거부감을 갖게 되어 등교거부나 자퇴를 하게 된다[9]. 따라서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인간관계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다뤄진 영역은 학교만족도에 대해서이다[1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혜리[11]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만족도가 낮고, 학업성취가 낮고,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예성과 박현선[12]의 연구에서도 집단 괴롭힘을 많이 당한 고위험 집단은 학교적응 유연성이 낮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학교인식과 학교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다루는데 한정되어 있으며 집단

따돌림의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집단따돌림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단따돌림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개인적 요인으로는 외모, 사회적 기술 부족, 낮은 자아존중감, 공격성, 타인에 대한 공감부족, 동조성 결여가, 가정적 요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생활 수준, 형제의 영향이,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TV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 지역사회 문화, 사회적 폭력의 만연 등이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3,14]. 그런데 개인의 사회적 기술인 협동 및 공감기술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유형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의 차이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학생의 인지적인 문제보다는 친구나 교사와의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중 협동과 공감 기술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 학교생활 적응의 예측변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과 협동 및 공감기술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과 협동 및 공감기술, 학교생활적응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집단따돌림 유형과 협동 및 공감기술이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거하고 총 21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응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을 시작한 후에라도 중도에 언제든지 설문지 응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응답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이 126명(59.2%), 여학생이 87명(40.8%)이었고, 중 1이 21명(9.9%), 중 2가 71명(33.3%), 중 3이 14명(6.6%), 고 1이 54명(25.4%), 고 2가 53명(24.9%)이었다. 평균 연령은 14.7세(SD=1.5)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성적은 상위가 16명(7.5%), 중상위가 59명(27.7%), 중위가 75명(35.2%), 중하위가 42명(19.7%), 하위가 21명(9.9%)이었다.

2. 연구 도구

2.1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 척도는 박소현[15]이 수정·보완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척도와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해 및 피해경험은 각각 17문항씩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외형과 언어형, 신체형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조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피해경험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며, 가해문항은 '그의 나쁜 점을 여러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욕하며 망신을 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모두 점수

가 높을수록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소현[1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3~.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과 피해경험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모두 .95였다.

3.2 협동기술과 공감기술

협동 및 공감기술은 Gresham과 Elliot[16]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를 한영주[17]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협동기술은 갈등에 대해 타협할 줄 알고, 자신의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공감기술은 친구의 어려운 점을 알고 안쓰러움을 느끼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의미한다. 협동기술의 문항을 살펴보면, '수업시간에 해야 하는 과제나 기타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마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감기술은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기술 및 공감기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협동기술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이었고, 공감기술은 .80이었다[17]. 본 연구에서 협동기술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이었고, 공감기술은 .90이었다.

3.3 학교생활적응도

학교생활적응도는 임철중[18]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총 29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문항을 보면, '나는 우리 반 친구 누구하고도 잘 어울려 노는 편이다', '학교에서 단체로 행사에 참여할 때 최선을 다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는 분산분석 후 Tukey의 HSD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른 군집 분류는 위계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집단따돌림 군집과 사회기술 및 학교생활적응도 간의 관계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확률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연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변수들의 왜도(-.20~1.07)와 첨도(-.38~.48)를 분석한 결과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65, p<.001$).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은 협동($r=-.31, p<.001$) 및 공감기술($r=-.28, p<.001$), 학교생활적응도($r=-.42, p<.001$)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피해경험도 협동($r=-.26, p<.001$) 및 공감기술($r=-.35, p<.001$), 학교생활적응도($r=-.38, p<.001$)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협동($r=.67, p<.001$) 및 공감기술($r=.69, p<.001$)은 학교생활적응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1.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과 협동 및 공감기술, 학교생활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 (N=213)

변인	(1)	(2)	(3)	(4)	(5)
(1) 집단따돌림 가해					
(2) 집단따돌림 피해	.65 (.001)				
(3) 협동기술	-.31 (.001)	-.26 (.001)			
(4) 공감기술	-.28 (.001)	-.35 (.001)	.54 (.001)		
(5) 학교생활적응도	-.42 (.001)	-.38 (.001)	.67 (.001)	.69 (.001)	
M±SD	29.26 ±11.92	25.03 ±11.86	45.53 ±7.26	48.77 ±7.07	101.62 ±15.15

주. 상관계수 아래 ()안의 값은 유의확률임.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협동 및 공감기술, 학교생활적응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과 협동 및 공감기술, 학교생활적응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기술의 공감기술 요인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2.45, p<.001$).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집단따돌림 가해경험($F=10.16, p=.002$)과 피해경험($F=7.91, p=.005$)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기술의 협동기술($F=22.27, p<.001$)과 공감기술($F=33.45, p<.001$)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학교생활적응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51.54, p<.001$). 지각된 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경험에서는 하위권이 학생들이 중상위권인 학생들보다 피해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F=3.51, p=.008$). 성적별 사회기술의 차이에서는 협동기술($F=11.33, p<.001$)과 공감기술($F=8.86,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협동기술은 하위권보다 중위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중하위보다 중상위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공감기술은 하위권보다 중위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중하위보다 중상위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생활적응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9.03, p<.001$), 하위권

보다 중하위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중하위권보다 중위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에 대한 군집분석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은 K-평균 군집분석이 초기에 설정하는 군집의 수(K)와 초기중심점(initial seed points)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단계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먼저 수행하여 군집의 수와 초기중심점을 산출한 후, 두 번째 단계로 K-평균 군집분석에 1단계에서 산출한 군집 수와 초기중심점을 입력하여 최종 군집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을 위한 기준변수로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먼저 1단계인 위계적 군집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변수들을 투입하였고, 군집방법은 ‘Ward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개체간 거리는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다. 군집의 수는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고려했을 때 4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군집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석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4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의 2단계인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결정한 대로 집단의 수는 4개로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도의 차이 (N=213)

변인	집단따돌림 경험				사회기술				학교생활적응도	
	가해경험		피해경험		협동기술		공감기술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성별		1.07		1.02		.14		12.45		.45
남성	30.0±12.3	(.302)	28.7±12.4	(.314)	45.4±7.4	(.712)	47.4±7.2	($<.001$)	101.0±16.3	(.503)
여성	28.2±11.3		27.0±11.1		45.7±7.1		50.8±6.4		102.5±13.4	
학교		10.16		7.91		22.27		33.45		51.54
중학교	26.7±8.7	(.002)	25.8±9.6	(.005)	47.8±6.9	($<.001$)	51.4±6.3	($<.001$)	108.3±12.2	($<.001$)
고등학교	31.8±14.0		30.3±13.4		43.3±6.9		46.2±6.8		95.0±14.9	
성적		2.10		3.51		11.33		8.86		19.03
하위 ^a	32.5±14.5	(.085)	33.9±14.8	(.008)	39.4±4.8	($<.001$)	43.3±5.1	($<.001$)	83.9±11.3	($<.001$)
중하위 ^b	31.5±13.8		30.4±12.8	a)d	42.3±7.3	a<c,d,e	46.1±6.6	a<c,d,e	94.0±12.6	a<b<c,d,e
중위 ^c	29.8±11.8		26.8±10.4		46.0±7.0	b<d,e	49.1±6.3	b<d,e	104.0±12.6	
중상위 ^d	25.8±8.2		24.8±9.4		48.2±6.0		51.9±6.7		108.1±13.8	
상위 ^e	29.6±13.7		31.7±15.5		50.0±7.5		50.1±9.1		109.9±15.9	

주. 알파벳은 Tukey의 HSD 사후검정 결과임.

설정하였고, 초기중심점은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산출한 4개 군집별 각 기준변수들의 평균값을 초기중심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 결과의 최종중심점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최종중심점을 기준으로 군집을 명명한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일반군' 집단(군집1)과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군' 집단(군집2), 가해경험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해군' 집단(군집3),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가·피해군' 집단(군집4)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별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경험의 중심점을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일반으로 분류된 학생 수는 122명(57.3%)이었고, 피해군은 20명(9.4%), 가해군은 50명(23.5%), 가·피해군은 21명(9.9%)이었다.

표 3. 집단따돌림 유형의 최종 군집 중심점 (N=316)

구분	군집1 (일반군)	군집2 (피해군)	군집3 (가해군)	군집4 (가·피해군)	F(p)
가해경험	-.67	.29	1.38	1.86	250.99 (<.001)
피해경험	-.66	.87	-.13	1.87	284.12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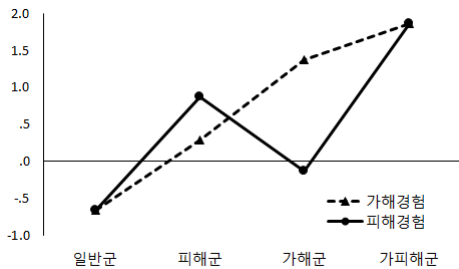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따돌림 군집별 중심점

4. 집단따돌림 군집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 학교생활적응도간의 차이

집단따돌림 군집별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따돌림 군집과 협동기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8.27, p<.001$), 일반군이 집단따돌림 피해군, 가해군, 가·피해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공감기술은 집단따돌림 군집

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1.61, p<.001$), 일반군이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피해군과 가해군이 가·피해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도는 일반군이 가해군과 가·피해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피해군도 가·피해군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35, p<.001$).

표 4.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 적응도의 차이 (N=213)

변인	일반군 ^a	피해군 ^b	가해군 ^c	가·피해군 ^d	F(p)
	M±SD	M±SD	M±SD	M±SD	
협동기술	47.54 ±6.68	42.50 ±8.13	43.28 ±6.44	42.05 ±8.03	8.27(<.001) a)b,c,d
공감기술	50.62 ±6.59	47.70 ±6.74	47.60 ±6.96	41.86 ±5.43	11.61(<.001) a)c)d / b)d
학교생활 적응도	107.05 ±13.44	98.65 ±17.84	95.32 ±13.43	87.90 ±10.54	17.35(<.001) a)c,d / b)d

주. 알파벳은 Tukey의 HSD 사후검정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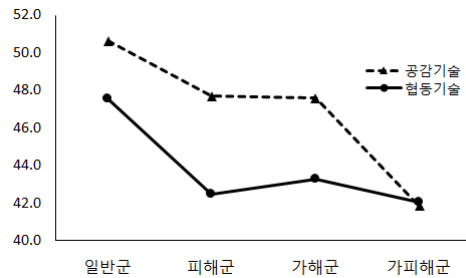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따돌림 군집별 협동기술과 공감기술

협동기술과 공감기술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5], 협동기술이 증가하면 일반군이 피해군($OR=.13, p=.006$) 및 가해군($OR=.30, p=.023$)으로 분류될 승산비(Odds Ratio: OR)가 유의하게 낮았고, 공감기술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반군에서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승산비가 유의하게 낮았다($OR=.06, p=.002$). 피해군과 가해군 간에 협동기술과 공감기술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감기술이 증가할 경우 피해군과 가해군이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승산비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08, p=.021$).

표 5. 협동과 공감기술이 집단따돌림 유형에 미치는 영향

(N=213)

참조범주	일반군						피해군				가해군	
	피해군		가해군		가·피해군		가해군		가·피해군		가·피해군	
준거변인	B(p)	OR	B(p)	OR	B(p)	OR	B(p)	OR	B(p)	OR	B(p)	OR
예측변인												
성별	.67(.239)		-.08(.826)		.41(.506)		-.75(.217)		-.26(.738)		.49(.443)	
학교	.20(.727)		.38(.727)		-1.28(.071)		-.33(.585)		-1.47(.080)		-1.14(.122)	
성적	.29(.266)		-.02(.935)		-.05(.837)		-.31(.274)		-.35(.294)		-.04(.891)	
협동기술	-2.06(.006)	.13	-1.21(.023)	.30	-.35(.702)	.71	.84(.285)	2.32	1.71(.117)	5.52	.87(.363)	2.38
공감기술	-.28(.713)	.76	-.48(.382)	.62	-2.79(.002)	.06	-.20(.802)	.82	-2.51(.021)	.08	-2.30(.014)	.10

OR=Odds Ratio.

집단따돌림 군집과 협동 및 공감기술이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값을 산출한 결과 2.02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10미만으로 나타나 예측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I에서는 학교($\beta=-.32$, $p<.001$)와 성적($\beta=.3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량은 33.3%로 유의하게 나타났($R^2=.333$, $F=34.84$, $p<.001$).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따돌림 군집을 투입한 모형 II는 모형 I보다 설명량이 10.1%p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101$, $F=12.33$, $p<.001$), 43.5%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냈다($R^2=.435$, $F=26.42$, $p<.001$). 일반군을 기준으로 피해군($\beta=-.15$, $p=.005$), 가해군($\beta=-.26$, $p<.001$), 가·피해군($\beta=-.26$, $p<.001$) 모두 유의하게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기술과 공감기술을 투입한 모형 III에서는 모형 II보다 24.7%p의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247$, $F=79.41$, $p<.001$), 68.2%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냈다($R^2=.682$, $F=54.75$, $p<.001$). 추가 투입된 협동기술($\beta=.30$, $p<.001$)과 공감기술($\beta=.39$, $p<.001$)은 모두 학교생활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감기술($\beta=.39$)이었다.

표 6. 집단따돌림 유형과 협동 및 공감기술이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N=213)

변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beta(p)$	B	$\beta(p)$	B	$\beta(p)$
상수	99.84		103.75		35.16	
성별	-.27	-.01 (.879)	-1.12	-.04 (.498)	-2.87	-.09 (.027)
학교	-9.63	-.32 (.001)	-7.76	-.26 (.001)	-3.32	-.11 (.015)
성적	5.48	.39 (.001)	5.04	.36 (.001)	2.50	.18 (.001)
집단따돌림						
피해군			-8.01	-.15 (.005)	-2.89	-.06 (.183)
가해군			-9.12	-.26 (.001)	-5.26	-.15 (.001)
가피해군			-13.00	-.26 (.001)	-5.92	-.12 (.009)
협동기술					.63	.30 (.001)
공감기술					.84	.39 (.001)
$R^2(\Delta R^2)$.333		.435(.101)		.682(.247)	
F(p)	34.84(.001)		26.42(.001)		54.75(.001)	

주. 성별은 남성, 학교는 중학교, 집단따돌림은 일반군이 참조범주임.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라 협동기술과 공감기술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집단은 일반군과 피해군, 가

해군 및 가·피해군으로 분류되었다. 가·피해군의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학교생활 적응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고위험 집단으로 주의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가해군과 가·피해군은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피해군의 경우에는 피해군보다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매우 심각한 부적응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 중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해와 피해를 중복 경험한 학생들이 10.8%로 나타났고[19], 본 연구에서도 9.9%로 분류되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한국청소년패널 1차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종단적 연구를 위해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 자료의 경우 표본이 크고 체계적으로 표집이 되지만 설문조사의 질문이 단지 5개 문항으로 가해 및 비행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이 5개 문항의 조합으로 가해 및 피해유형을 분류하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해 및 피해경험을 조사하는데 있어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였고, 집단의 분류에 있어서도 군집분석을 통해 경계선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져 집단따돌림 유형의 분류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부적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피해군이 가장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가·피해 중복 집단의 학교부적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19].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20], 이러한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자들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자인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술과 관련하여 일반군을 기준으로 가해군과 피해군 및 가·피해군이 유의한 협동기술의 부족을 보였고, 공감기술의 경우에는 일반군을 기준으로 가해군과 가·피해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협동기술과 공감기술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군을 기준으로 피

해군과 가해군은 협동기술이 유의한 예측변수였고, 가·피해군은 공감기술의 부족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피해군은 일반군뿐만 아니라 피해군 및 가해군과 비교해도 공감기술의 부족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가·피해군이 가장 심각한 위험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감기술의 부족이 협동기술의 부족보다 학교폭력의 가·피해군 분류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기술에서 협동기술의 부족은 일반군이 피해군이나 가해군으로 분류될 확률을 높이지만, 공감기술의 부족은 가·피해군으로의 분류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기술의 증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감능력은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나 공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21,22],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공감기술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도 다양하게 시행되었는데, 미술치료를 접목하여 정서적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거나[23], 심리극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24].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감능력의 증진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선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정서적 외상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은 유의한 매개변수로 나타나[25], 아동기부터 부모와의 적절한 관계에서 공감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감은 집단따돌림과 같은 부적응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 증진에도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나[26] 집단따돌림을 위한 예방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대안으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에 모두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27], 대인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감 및 협동기술의 증진은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공감기술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아동기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공감기술과 협동기술이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 경험을 통제 한 후에도 협동기술과 공감기술은 학교생활적응을 24.7%p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28]. 또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특성과 낮은 공감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29], 청소년기 협동과 공감기술의 습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협동과 공감기술 증진과 같은 사회적 기술훈련은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필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에서 협동과 공감기술 증진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부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적절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일도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증진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이 1학기 단기간의 연구였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학습전략 검사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성적을 분석할 경우 학습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절히 통제하여 추후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종단적으로 성적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도의 측정 영역이 매우 넓으므로 더욱 다양한 변수로 측정하여 학습전략의 영향을 다면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만을 평가하였으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공 영역, 대학 만족도 등 성과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박완성, 차명호,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실태 분석 및 예방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2013.

[2] J. G. Parker and S. R. Asher,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Vol.29, No.4, pp.611-621, 1993.

[3] M. Helsen, W. Vollebergh, and W. Mee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 in Adolescence*, 2000.

[4] I. Y. Bernstein and M. W. Watson,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2, No.4, pp.483-498, 1997.

[5] 교육부,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2.

[6] 교육부, *2014년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4.

[7] 한국교육개발원, *2013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분석결과*, 2013.

[8] 김은아, 이승연,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습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4권, 제1호, pp.59-77, 2011.

[9] 이종화,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0]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pp.321-256, 2011.

[11] 송혜리,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

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2] 김예성, 박현선, “초등학교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23권, 제1호, pp.65-97, 2007.

[13] 가우디, *왕따 리포트*, 서울: 우리교육, 1999.

[14] 이상균, “중학교 또래 따돌림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pp.357-379, 1999.

[15] 박소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와 보복심리: 집단 따돌림의 유형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6] F. M. Gresham and S. N. Elliot,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1990.

[17] 한영주,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 임철중, *가정의 과정 환경 변인과 학교 생활 적응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9]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123-149, 2005.

[20]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제5권, pp.303-310, 1999.

[21] 조은문, 이종연, “중학생 영재와 평재 간 대인관계와 공감의 차이 및 상관 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제2호, pp.1149-1164, 2009.

[22] 홍명숙, 어주경,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911-3928, 2013.

[23] 정명선, “학교폭력 청소년의 공감훈련 집단미술 치료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51-77, 2010.

[24] 최진이, *심리극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우울, 공감, 희망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5] 박인구, 한기백,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공격성의 관계: 분노와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2호, pp.375-397, 2014.

[26] 김영희, 고태순, “중학생의 희망 및 공감과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330-338, 2014.

[27] 이혜순, “청소년의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이 집단따돌림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319-329, 2014.

[28] 김은경,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재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2권, 제1호, pp.37-56, 2009.

[29] 서지현,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저 자 소 개

박 완 성(Wan-Sung Park)

정희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1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개인차 이론, 교수-학습방법, 교육심리, 진로상담, 진로교육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희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심리측정·평가, 학교심리, 정신건강